

청평사 팔경의 조망역(眺望域) 분석

- 옛 문헌에 묘사된 조망관련 구문(句文)을 중심으로 -

김용현* · 윤영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청평사는 분지형을 이루면서 산지지형으로 폭포, 반석계류 중심의 하천지형 등이 조화를 이룬 수려한 자연경관처이다. 청평사는 역사 문화적 경승지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2010년 2월 청평사 일원 약 109만 여²m²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0호로 지정되었다. 청평사에는 선원의 빼어난 승경을 담은 조선 중기 보우의 ‘청평팔영’ 등 3개의 팔경시가 전해지고 있고, 또 팔경시 뿐만 아니라 많은 저명한 문인묵객들이 오가며 청평사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시문이나 기문에 많이 남겨놓아 이러한 팔경요처를 비롯한 여러 경처들을 조망적 관점에서 문헌상에서 당시 수행 또는 휴식하며 보고 느낀 해당 유적현장을 찾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청평사 팔경의 경관요처에 대한 조망점(치)과 조망대상경처의 감상현장을 역사적으로 기술한 구문을 중심으로, 해당 경처의 실제 현장에서 옛 선인들이 보고 느꼈던 감상 조망치와 대상경처를 현대적 시각의 분석을 통해 조명하여 유적 및 장소성의 공간적 가치와 그 역사 경관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청평사에 전해지는 조선중기 보우, 조우인, 유숙 등 세 팔경시의 소표제 10경관요처를 대상으로 해당 제영별 시와 관련 기문 등에서 구체적인 해당 조망관련 문구를 선별, 발췌하여 조사의 표본자료로 하였다. 그리고 시, 기문에 묘사된 유적과 현장을 비교해 그 시상의 대상이나 감상했던 조망치 및 지점을 찾아 그 시점(장)과 대상경(치)을 본문에 제시하였다. 이 세부 사료적 자료를 근거로 그 시각적 조망요소별로 시점에서의 대상경(물)의 조망각도, 거리 등을 측정하여 시계와 원근 거리를 파악하였다. 대상시점과 대상경(물)의 측정지점은 그 조망역의 중심에서 대상경의 시각적 조망각도(부각, 양각)와 거리를 제시하였는데, 거리는 직선거리로 GPS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일부 팔경 10경처 중 조망역(眺望域)이 확실치 않은 것은 현장 유적공간에서 보이는 우세적 대상경(물)을 추정해 분석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반석

보우의 청평팔영 제1영인 ‘반석송객(盤石送客)’은 ‘반석에서 손님을 보낸다.’는 시제로 구송폭포 구역의 경처이다. 구송폭포 하쪽에 있는 이 반석 동쪽에 구송대를 만들었는데 이 반석과 그 옆의 구송숲(터), 구송폭포 하쪽과 용담 그리고 멀리 구송폭포 상폭이 이 구송대에서 한 시야에 들어온다. 이 구송대는 구송폭포구역의 절경을 바라보며 놀고 즐긴 곳으로 그 경치를 감상하며 노는 모습이 조선중기 김상헌(1570~1652)의 『청음집』에 묘사되어 있다(표 1 참조). 구송대를 기준으로 반석과 용담이 내려다보이고, 하폭과 상폭은 올려다 보이는데, 하폭은 35m, 상폭은 85m 거리에 있으며 구송대에서 모두 시야에 들어온다. 구송(九松)은 현재 없다.

2. 용담

보우의 청평팔영 제2영인 ‘용담간폭(龍潭看瀑)’은 “용담에서 폭포를 본다.”는 시제로, 반석에서 바라본 용담과 폭포의 모습이다. 용담은 구송폭포 상, 하 용담이 있으며 하폭용담 옆 반석에서 본 하폭의 거리는 16m, 양각은 9.2°이며, 상폭은 63m 거리에 11.6° 올려다 보인다.

폭포가 흘러내려 용담에 부딪치는 모습과 폭포의 단애암벽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유숙의 ‘팔영’에는 우렁차게 떨어지는 폭포소리와 날리는 물결의 역동성이 묘사되고 있다.

3. 남지(영지)

보우의 청평팔영 제3영인 ‘남지조영(南池照影)’은 “남지에 비친 그림자를 본다.”는 시제로, 조선중기 보우 때 청평사를 방문한 구사맹(1531~1604)이 영지라 부르듯 남지 또는 영지로 같이 불렸다. 정시한(1625~1707) 『우담집』에서와 같이 못에는

표 1. 조망역(眺望域) 분석

제명	조망점	대상경	조망각(°)		거리(m)	묘사 구분	문헌	비고
			양각	부각				
반석송객 (盤石送客)	구송대	구송폭포(상)	6.7		85	용담의 쌍폭 아래에 돌이 있는데, 솟돌과 같이 평평하다. 동남쪽에서 온 손님을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 하루 종일 놀아 주었다.<보우의 청평팔영> 송단(구송대)에 앉아 술잔을 여러 차례 돌렸다. 맑은 계천이 잔잔하고 반석이 평평하고 고목장송이 좌우로 펼쳐져 있다. 폭포 물줄기도 더욱 험하게 모습을 발산하니 이 또한 일대의 기이한 경관이다.<김상헌의 청평록>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구송폭포(하)	2.7		35		김상헌 청음집 청평록	
		용담(하)		7.8	35			
		반석(하)		10.9	20			
용담간폭 (龍潭看瀑)	반석(하)	구송폭포(상)	11.6		63	돌 위 큰 소나무 아래에서 옷깃을 열어 제치고 앉아 내를 본다. 마치 하늘이 벗어낸 듯 한 큰 띠 모양이 깎아놓은 절벽에 드리우고 옥 같은 물결이 깊은 못에서 보글보글 거린다.<보우의 청평팔영> 여기와 노는 것이 어찌 그리 늦었는가 아름다운 경치가 장차 다하려 하네. 구름이 고요하니 용은 구렁에 숨고 우레 같은 폭포는 허공에 뿌려지네.<유숙의 팔영>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추천읍지(엄황) 불우
		구송폭포(하)	9.2		16			
		용담(하)		7.5	16			
남지조영 (南池照影)	영지	견성암봉	24.8		710	고경(古鏡)같은 남지가 매우 밝다. 그림자가 움츠러드니 두터운 눈썹이 주름 잡히듯 하고 걸이 이는 찬 물결은 빠처럼 깨끗하구나.<보우의 청평팔영> 견성암 및 그 주변의 암석, 초목, 승려가 예불하는 모습 등 그 모든 형세가 역력하고 선명해 황홀함을 느끼게 하며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정시한의 산중일기>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우담집 산중일기
서천세납 (西川洗納)	송대	부용봉(견성암봉)	25.8		630	흐르는 물은 용같이 굴곡져 있고 노는 고기는 가다 쉬다 하네.<유숙의 팔영> 서천 가에 있는 송대에서 올라다 보면 부용봉을 마주한 채 우뚝하니 허공에 버티고 있었다. 경운봉은 그 서쪽에 있다.<김상헌의 청평록>	추천읍지(엄황) 불우	
		경운봉(소요대봉)	24.1		860		김상헌 청음집 청평록	
천단예상 (天壇禮象)	천단	소요대	16.4		228	맑디맑고 밝고 영험한 모습을 한 하늘과 매우 푸르고 고요한 옥황상제의 거처.<보우의 청평팔영> 깨끗이 예단의 눈을 쓸어내고 향을 피우니 예의에 참됨이다.<조우인의 팔영>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조망역 추정
							추천읍지(엄황) 불우	
소요유적 (逍遙遺寂)	소요대	천단	16.4		228	하늘이 푸르러 뜬 구름은 걷히고 산이 개어 묵은 안개가 사라지네. 구천은 멀리 낮은 곳에 있고 삼도(삼신산)는 아득하여 부르기 어렵네.<보우의 청평팔영> 소요대 아래로는 거의 수천 길이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며 이곳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충충히 쌓여 있는 봉우리와 주위를 빙 둘러쳐 있는 산이 보인다.<서종화의 청평산기>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약한유고 권5 청평산기
선동심유 (仙洞尋幽)	선동입구	암벽	60.9		30	선경이 어디인지 아느냐? 숲 사이를 지팡이 끌고 찾아보았다. . . . 새겨진 청평선동의 네 글자를 보니 감동하여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잊어버리게 되네.<보우의 청평팔영> 서천에서 물줄기를 거슬러 수백보 올라가면 양쪽 바위가 우뚝 둘러싸고 있고 청평선동이란 네 글짜가 새겨져 있다.<송남수의 청평산>	허응당집 하청평팔영	청평 선동 각자
							해동산천록 청평산	
식암관정 (息菴觀靜)	선동암	식암	23		20	암자는 선동의 그윽한 곳에 있고, 누대는 옛 산골 물 주위에 자리 잡았네.<보우의 청평팔영> 식암이 암벽 끝에 매달린 채 까마득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만들었다.<박장원의 유청평산기>	허응당집 하청평팔	
		송대	48		23			
	송대	선동암		47.4	23		구당집 권15 유청평산기	
	식암	선동암		29	20			
견성입정 (見性入定)	견성암(터)	경내		28.2	540	멀리 천 길의 벽을 보니 중간에 두어 칸 절이 있구나.<유숙의 팔영> 암자는 부용봉 아래에 있고 지대가 가장 높아 온 골짜기가 다 내려 다 보인다.<김상헌의 청평록>	추천읍지(엄황) 불우	
	견성암(터)	영지		24.8	710		김상헌 청음집 청평록	
청평사 (경내)	제1마당	견성암봉	27.6		590	옛 절은 모두 친계인가? 황폐한 비석에 아녀자의 말 뿐 . . . 개울물 졸졸 졸 맑게 흐르는데 향을 태우며 방장에 앉아 적적하게 쌍지를 대하노라 <유숙의 팔영> 절 뒤의 세 개의 산봉우리가 특이하게 우뚝서있어 마치 그림 속에 둘러싸인 듯하다.<송남수의 청평사>.	추천읍지(엄황) 불우	해동산천록 청평사

북쪽 견성암봉과 그 일대가 선명하게 투영되어 옛 사람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신기하게 여겼다. 현재 영지 북변에 소나무가 가리어 본래의 투영되었던 견성암봉 일대의 경치가 일부만 투영되고 있다. 영지 변 남쪽 중심에서 바라본 견성암봉은 양각 24.8°이고 직선거리 710m이다.

4. 서천

보우의 청평팔영 제4영인 ‘서천세납(西川洗納)’은 “서천에서 장삼을 씻는다.”는 시제로, 절 서쪽에서 흘러내려 서천이다. 계천 따라 길이 나 있으며 험준하지 않고 길의 경사가 청평사 내길 중 가장 완만하여 옛부터 유람하기 좋은 경처라 했다. 계천 따라 양쪽으로 지맥 능선이 좁혀져 있어 멀리 산봉우리와 능선을 볼 수 없지만 송대와 일부 서천 길 일부에서만 멀리 산봉우리 원경을 볼 수 있다. 서천 하류에는 와룡담폭포가 있고 계천변에 정자가 세워졌던 송대가 있다. 이 송대에서 멀리 북서쪽으로 부용봉(견성암봉)이 25.8°, 경운봉(소요대봉) 24.1° 올려다 보인다.

5. 천단

보우의 청평팔영 제5영인 ‘천단예상(天壇禮象)’은 “천단에서 임금에게 예를 올린다.”는 보우대사가 왕실을 위해 제를 올린 곳이다. 이 천단은 견성암 북쪽 능선 상 중턱에 촛대바위(남근석)를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멀리 인공호인 소양호가 시야에 들어온다. 천단에서 소요대를 올려본 각도는 16.4°이며 소요대까지 거리는 228m이다.

6. 소요대

보우의 청평팔영 제6영인 ‘소요유적(逍遙遺寂)’은 “소요대에서 적막함을 보낸다.”는 시제로, 팔경요소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보우만 팔경에 포함시켰으며 보우의 좌선처로 이용되었다. 이 소요대는 평평한 자연지반을 그대로 이용한 대(臺)로 이 대 아래는 수직의 단애절벽이다. 옛글에 이 소요대 위로 솟은 표고 688m의 봉우리를 경운봉이라 불렀다. 소요대에서 천단을 내려다 본 각도는 16.4°이고 거리는 228m이다.

7. 선동

보우의 청평팔영 제7영인 ‘선동심유(仙洞尋幽)’는 “선동에서 그윽함을 찾는다.”는 시제로, 신선들이 사는 동네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선동(仙洞)이라 하였다. 선동은 장소적 의미에서 선동골 전체를 가리킨다. 이 선동은 서천의 지류로 계류를 따라 소협곡 속에 여러 인공물이 배치되었다. 보우의 청평팔영이나 송남수(1537~1626)의 ‘청평산’의 선동 묘사에서는 바로 선동

입구로 들어서며 늘어선 암벽에 이자현의 글씨인 ‘청평선동’이란 각자를 보며 지은 글이다. 이 수직벽체의 암벽은 마치 담장을 세워놓듯이 선동골로 이어지며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암벽은 거의 수직으로 서있는데 선동입구에서 본 암벽을 바라본 조망각은 60.9°, 암벽 높이는 14m, 암벽의 길이는 30m에 이른다.

8. 식암

보우의 청평팔영 제8영인 ‘식암관정(息庵觀靜)’은 “식암에서 고요함을 본다.”는 시제로, 이자현이 고려중기 세운 식암은 선동골 깊은 골짜기 속 계천변 수직 암벽 위에 세운 암자로서 이자현이 가장 즐긴 암자 수행처이다. 현재 적멸보궁이란 명칭으로 복원되어있다.

식암 옆은 입암 위에 조성한 송대가 있고 절벽 밑으로 2단 폭포가 흐르며 물가에 역시 이자현 때 세운 선동암 옛터가 있다. 이 식암과 송대에서는 남쪽 계곡사이로 제일 멀리 조망할 수 있도록 지형이 골짜기 열려있다. 식암에서 바라본 계천변 선동암에서 올려본 식암의 양각은 23°, 거리는 20m이고, 송대에서 선동암을 내려다 본 부각은 47.4°, 거리는 23m이다.

9. 견성암

조우인의 팔영 ‘견성입정(見性入定)’은 “견성암에 들어서다.”라는 시제로, 제2영에 차순 되어 있고 유숙의 팔영에도 제2영 ‘견성암(見性庵)’으로 차순 되어 있다. 견성암은 선원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로 다른 암자들은 대부분 계곡 속이나 산중에 있으나 이 암자만은 높이 솟아오른 암봉에 조성되어 청평골 일대가 한 시야에 들어온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견성암(터)에서 경내를 내려다본 각도는 28.2°이고 수직거리 540m이며, 견성암에서 영지를 내려다본 각도는 24.8°이고 거리는 710미터이다.

10. 청평사(경내)

청평사는 경내를 말하며 유숙의 제1영 ‘청평사’에 차순 되어 있다. 경내는 청평산(현 오봉산) 지맥이 흘러내린 양쪽 구릉 사이 분지를 이루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청평사 경내 입지에 대해 서종화는 『약현유고』에서, “북쪽에 대가람이 있는데, 산이 열려있고 물이 돌아져 있으며 사신이 주위에서 호위하는 듯한 것이 진보임승(眞寶林勝)의 형국이다.”라고 하였다. 절 북쪽에 우뚝 솟아오른 견성암봉을 제1마당에서 올려다본 양각은 27.6°이며 거리는 590m 떨어져 있다.

IV. 결론

청평사는 고려중기 이자현이 경외로 선원을 확장하며 지형

지세를 이용해 인공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현재와 같은 공간의 틀을 형성했다.

청평사에 전해지는 3인의 팔경시에는 모두 10개의 소표제로 제영된 경관요처가 선정되어 있다. 이 팔경 10요처가 청평사의 선원의 핵심적 경관요처이다. 이 청평사 팔경에 소표제로 제영된 10개의 경관요처를 보고 느낀 시, 기문이 대부분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팔경요처를 보고 즐긴 현장유적을 옛글과 비교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그 조망점(처)과 대상경관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고지대 산악지역에 있는 견성암, 천단, 소요대 등은 청평산(현 오봉산) 일대 광범위한 조망 영향권의 범주이나 기타 대부분은 협곡 속에 위요된 경관적 입지에 격리된 공간감으로 선 수행에 좋은 조건이다. 이 협곡 내 경관요처들은 근접경관의 좁은 조망역으로 그 조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경관보다 크기와 공간감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한다.

인용문헌

1. 보수사상연구회(1993) 허응당집. 보우. 허응당보우연구. 불사리담.
2. 은진송씨송담공중중(1995) 해동산천록. 송남수.
3. 안장리(2002)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4. 윤영환, 김홍삼, 한재오(2005) 청평사 선원의 고문헌적 고증 연구(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3):1-12.
5. 윤영환, 김홍삼, 한재오(2005) 청평사 선원의 고문헌적 고증 연구(2).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57-72.
6. 윤영환(2006) 청평사 원림의 경치와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1-13.
7. 윤영환(2009) 청평사. 빛깔있는 책들 272. 대원사.
8. 정시한 신대현 역(2005) 우담집. 산중일기. 도서출판 해안.
9. 춘천시(1997) 춘천지리지(I, II). 강원도민일보사 출판사.
10. 한국문집총간(1991) 청음집. 김상헌. 민족문화추진회.
11. 한국문집총간(1994) 구당집. 박장원. 민족문화추진회.